

宋代 복식에 표현된 襖의 유형과 조형특성

옥 명 선* · 박 옥 련⁺ · 이 주 영**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Typ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n(襖) Expressed in the Costume of Chinese Song(宋) Dynasty

Myung-Sun Ok* · Ok-Lyun Park⁺ · Joo-Young Lee**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University**

(2005. 11. 2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eon expressed in the costume of Chinese Song.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lassified types of Seon, found in the Chinese costume, in terms of composition method, decorative technique and used materials. In addition, the researcher attempted to analyz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n in accordance with the range and post of use, pattern and color combination.

Seon expressed in the costume of Chinese Song can be classified into standard, decoration, application and Buseon in type. When the typical distribution of Seon expressed in the costume of Chinese Song, standard type was highest in percentage, especially different color type. Looking at the range of use, Seon was mainly used for outfits, especially Jikcheol(直裰) and Hakchangeui(鶴氅衣) for men and Baeja(背子) for women. Looking at the post of use, Seon was mainly used to edges of costume and sometimes also to seams. In regard to materials of Seon, they were selectively used depending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size and brilliance or non-brilliance of pattern employed in the texture of Seon. The most commonly used pattern of Seon was single-type pattern, especially the pattern of plant. Pattern arrangement was most often filling in type. Concerning the color combination of Seon, men's dress most often used black-white combination, followed by different color combination while, women's dress most often employed complementary color combination, followed by different color combination.

Key words: Seon(襖), Chinese Song(宋代), types classification(유형분류),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특성)

I. 서언

선은 깃, 수구, 도련, 섶 등 의복의 가장자리에 의복색과 동일하거나 다른 색의 천을 덧댄 것으로 실용과 장식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宋代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송대 복식은 당대의 복식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한족의 전통복식을 많이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제도나 양식이 풍부해졌다. 송대 사람들은 호화로운 것을 싫어하고 검소함을 숭상했기 때문에 의복이 간단하고 소박하며, 그 색채도 수수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정취가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¹⁾ 그런데 송대의 유물을 보면 의복이 소박하고 수수한데 비해 의복의 가장자리에 표현된 선장식은 오히려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송대에는 선이 의복을 장식하는 중요한 조형요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복식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서옥경, 김혜영, 손경자 등은 고려시대 복식과 송·원대 복식의 상관성에 관하여 비교 연구하였고,²⁾ 유희경, 이순자, 김문숙 등은 중국복식이 고려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는 등 복식자체와 복식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³⁾ 송대 복식의 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구성법과 장식기법, 본선의 유무, 그리고 사용된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선의 조형특성을 사용범위와 사용부위, 재질, 문양, 배색방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복식사 및 회화·벽화 관련 서적과 논문, 그리고 출토복식관련 보고서와 박물관 소장 유물도록집 등을 참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II. 宋代 복식의 종류

송 왕조는 서기 960년에 건립되었고, 1279년에 원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송대의 복식은 당의 제도를 계승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⁴⁾ 건국 초 태조 2년에 《三禮圖》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복식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후에도 복식제도는 다시 여러 차례 수정이 되었으나, 백관의 공복은 당에서 제정한 북방민족의 盤領袍衫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복과 조복을 제외하고는 상·하를 막론하고 통용되었으며 복색으로 그 등위를 가렸다.⁵⁾

1. 남자복식

송대의 관복에는 제복, 조복, 공복, 시복, 喪服 등이 있었고, 사대부복으로는 심의, 자삼, 양삼, 모삼, 난삼 등이 있다. 공복은 常服으로 당대 복식인 반령의 난삼을 이어받았으나, 목 부분에 다른 색을 덧대거나 속옷의 깃이 드러나 있는 점이 당대의 제도와 다르다. 한편 일반인의 편복에는 송대의 홑포로 당시에 直綴 혹은 直身이라 불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큰소매에 교령의 우입인 포로 사방에 검은 색으로 가선을 대었고, 허리에는 긴 띠를 매었는데 주로 퇴직한 한가로운 관리나 문인 유생들이 입었다.⁶⁾

중국복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송대에 착용된 남자의복의 종류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송대에 착용된 남자의복을 보면, 천자복에는 제복, 조복, 常服, 편복 등이 있고, 백관의 관복에는 제복, 조복, 공복, 시복, 용복, 喪服 등이 있다. 사대부와 평민의 일반의복에는 의, 상, 포, 유, 오, 단갈, 갈의(갈), 삼(자삼, 양삼, 모삼, 난삼), 심의, 학창, 직철, 도의, 배자, 반비, 구, 단후의, 맥수, 사, 단의, 긴퇴 등이 있으며, 이외에 승려가 입는 가사와 무사들이 입는 개갑 등이 있다.

이 중 심의와 삼은 사대부만 입을 수 있었다. 즉 송대의 남자복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된 것은 삼, 학창의, 직철이다. 삼은 사대부의 편복으로 자삼, 양삼, 모삼, 난삼 등이 있는데, 자삼은 원래 용복으로 착용되었으나 사대부의 의복이 되었고, 양삼은 형태가 자삼과 같고 백삼이라도 하였으며, 모삼은 사대부의 일반 예복이고, 난삼은 수구가 넓은 장삼으로 깃은 원령 또는 교령이며 거단에는 橫襟이 있는 上衣下裳 형태이다.

한편 맥수는 선오와 유사한 것으로 길이는 허리를 넘지않고 소매는 팔꿈치 정도이며 주로 두꺼운

<표 1> 宋代 남자의복의 종류

연구자	의복의 종류	
周錫保 ⁷⁾	品官冠服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시복(時服), 용복(戎服), 상복(喪服)
	一般服飾	의(衣), 상(裳), 포(袍), 유(襦), 오(襖), 단갈(短褐), 갈(褐), 삼(衫), 난삼(襪衫), 직철(直裰), 도의(道衣), 학창(鶴鶩), 배자(背子), 반비(半臂), 구(裘), 단후의(短后衣), 맥수(貉袖), 사(裘)
黃能馥·陳娟娟 ⁸⁾	官服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시복(時服), 용복(戎服), 상복(喪服)
	一般服飾	포(袍), 유(襦), 오(襖), 단갈(短褐), 갈의(褐衣), 삼(衫), 직철(直裰), 난삼(襪衫), 도의(道衣), 학창(鶴鶩), 배자(背子), 반비(半臂), 맥수(貉袖)
華梅 ⁹⁾	男子服裝	난삼(襪衫), 모삼(帽衫), 구의(裘衣, 鶴鶩), 조복(朝服)
	人民服	단의(短衣), 긴퇴(緊腿)
	기타	가사(袈裟), 개갑(鎧甲)
李正玉의 3인 ¹⁰⁾	천자복식	제복(祭服, 冕服), 조복(朝服), 상복(常服), 편복(便服)
	황태자복식	제복(祭服), 조복(朝服), 상복(常服)
	관복	제복(祭服), 조복(朝服=具服), 상복(常服)
	사대부복식	심의(深衣), 자삼(紫衫), 양삼(涼衫), 모삼(帽衫), 난삼(襪衫)

帛으로 만드는데, 그 중 錦으로 만든 것은 자주색帛으로 선을 두른다. 원래는 임금의 말을 부리는 마부의 옷으로 전후 옷자락이 짧은 것은 말을 탈 때 편리하도록 한 것이고 소매가 짧은 것은 말을 부리기 위해 편리하도록 한 것으로, 원·명·청대에는 기사에게 사용되어 馬掛의 전신이 되었고, 원대에 보편적으로 착용되었다.¹¹⁾

2. 여자복식

송대의 부녀복식은 당에서 제정된 漢族부녀복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유, 삼, 대수, 배자, 반비, 배심 등을 상의로 하여 하의로는 상이나 군을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었다.¹²⁾ 부녀자들은 소매가 좁고 교령우임으로 된 좁고 긴 상의에 여러 가지 형식의

치마를 입고, 帔를 걸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여기에 대금의 긴소매 배자[旋襖]를 입었다.

중국복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송대에 착용된 여자의복의 종류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해 송대에 착용된 여자의복을 보면, 황후의 예복에는 휘의, 주의, 예의, 국의, 유적, 적의 등이 있고, 일반부녀복에는 유, 오(선오), 삼, 배자, 반비, 배심, 양당, 포, 대수, 위요, 요건, 말흉, 과두, 피백, 맥수, 군, 상, 고, 곤 등이 있는데, 이 중 대수는 귀부녀만 입을 수 있었으며, 일반부녀는 대수를 입을 수 없어 배자로 대체하였다.¹⁸⁾

즉 송대의 부녀복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된 것은 대수와 배자이다. 대수는 원래 황후, 빈, 비의 상복으로 양소매가 넓어서 나온 이름으로 이후 민간에 전해져 귀부녀의 예복이 되었다. 배자는 송대

<표 2> 宋代 여자의복의 종류

연구자	의복의 종류	
周錫保 ¹³⁾	命婦冠服	휘의(褙衣), 유적(褵翟), 국의(鞠衣), 주의(朱衣), 예의(禮衣), 상복(常服)
	婦女 日常服飾	유(襦), 오(襖), 삼(衫), 배자(背子), 반비(半臂), 배심(背心), 양당(襦襦), 포(袍), 맥수(貉袖), 위요(圍腰), 요건(腰巾), 말흉(抹胸), 과두(褰肚), 피백(披帛, 領巾), 군(裙), 고(袴), 곤(褌)
黃能馥·陳娟娟 ¹⁴⁾	유(襦), 오(襖), 삼(衫), 포(袍), 배자(背子), 반비(半臂), 배심(背心), 양당(襦襦), 위요(圍腰), 말흉(抹胸), 과두(褰肚), 군(裙), 고(袴), 곤(褌)	
李正玉의 3인 ¹⁶⁾	황후복식	휘의(褙衣), 주의(朱衣), 예의(禮衣), 국의(鞠衣), 유적(褵翟), 적의(翟衣)
	부녀복식	유(襦), 오(襖), 삼(衫), 대수(大袖), 배자(背子), 반비(半臂), 배심(背心), 군(裙), 고(袴)
이순자 ¹⁷⁾	유(襦), 오(襖, 旋襖), 상(裳), 삼(衫), 대수(大袖), 배자(背子), 반비(半臂), 배심(背心), 말흉(抹胸), 과두(褰肚), 군(裙), 고(袴)	

남녀가 모두 착용한 가장 특색이 있는 의복으로써 예복으로도 입혀져 성행하였다. 배자의 수구와 앞단의 가장자리에는 채색하거나 수놓은 선을 달았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領抹'이라 하였으며, 좌우 겨드랑이 아래는 옆트임이 있고, 어떤 것은 무늬가 있는 선을 대었다.¹⁹⁾

III. 유형분류와 유형분포

1. 유형분류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은 고려후기의 아미타여래도와 수월관음도, 조선시대의 선에 관하여 연구한 전보²⁰⁾를 참고하고, 여기에 송대 복식에 많이 사용된 부선을 고려하여 기본형, 장식형, 응용형, 副襪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본형은 선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법에 따라 제물선과 이색선으로 분류되는데, 제물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제천을 덧댄 유형이고, 이색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다른 색의 천을 덧댄 유형이다. 장식형은 선에 여러 가지 장식을 가한 것으로 장식기법에 따라 彩紋형, 자수형, 금박형 등으로 분류된다. 부선형은 기본형과 장식형의 선을 본선으로 하고, 본선의 양쪽이나 한쪽에 다시 선을 대어 장식한 것으로 본선의 유형에 따라 기본형+부선형과 장식형+부선형으로 분류된다. 응용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선의 느낌이 나도록 동물의 털, 금속판 등을 가한 것으로

사용된 재료에 따라 수모형과 금속제형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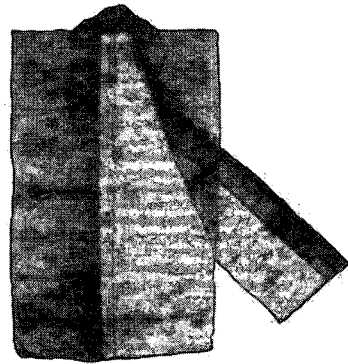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선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형

(1) 제물선

제물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제천을 덧대어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

<그림 2>는 黃昇墓에서 출토된 背心이다.²¹⁾ 이는 소매가 없고 길이는 허리정도인 홑옷으로 짙은 안개빛 비단에 모란꽃이 직조되어 있으며, 겹감을 그대로 안으로 꺾어 넣어 옷감의 겹침에 의해 선의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제물선이 들어간 의복은 모두 간접적으로 선을 표현함으로써 은은한 이미지를 연출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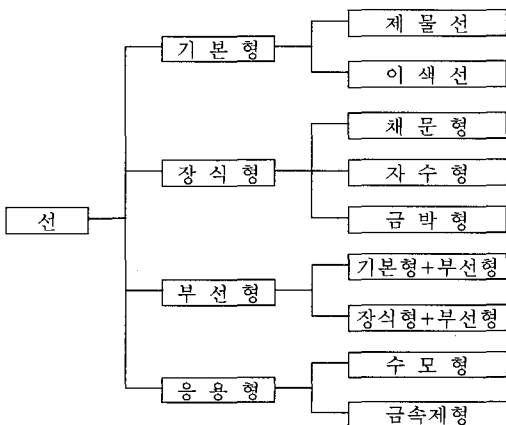


<그림 2> 제물선(배심); 中國歷代婦女裝飾, p. 228

(2) 이색선

이색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다른 색의 천을 덧대어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

<그림 3>의 新疆에서 출토된 錦袍²³⁾는 바탕천에는 등을 맞댄 신령스러운 독수리 2마리가 기하문의 둥근 테두리 안에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기하학적인 느낌으로 직조되어 있고 깃, 도련, 섯선, 수구 등에는 금색으로 선을 둘러쌌다. <그림 4>의 蘇軾이 입고 있는 직철은 깃, 섯선, 도련, 수구에 검은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이색선이 들어간 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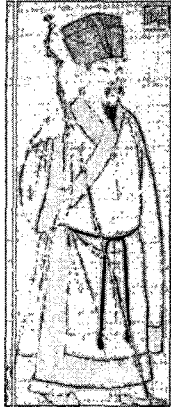


<그림 1> 송대 복식에 표현된 襪의 유형분류

은 모두 직접적으로 선을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색상 대비에 의해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연출한다.²⁴⁾



〈그림 3〉 이색선
(금포; 中華服飾
藝術源流, p. 277)



〈그림 4〉 이색선
(직철; 故宮圖像
選萃, 圖 25)

2) 장식형

(1) 채문·자수형

채문형은 제물선 또는 이색선을 댄 다음 선 위에 채색으로 장식한 것이고, 자수형은 제물선 또는 이색선을 댄 다음 선 위에 자수로 장식한 것이다. 송대의 회화자료를 보면 회화라는 특성상 채문법과 자수법으로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채문이나 자수로 장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편의상 채문·자수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5〉는 인종황후가 입고 있는 褙衣로서, 심청색이고 깃, 섶선, 도련, 수구에 홍색으로 선이 둘러져 있으며, 여기에 구름과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다.²⁵⁾ 〈그림 6〉의 《雜劇人物圖》에 나오는 배우가 입고 있는 배자는 소색이고, 대금과 수구에 홍색으로 선이 둘러져 있으며, 여기에 花紋이 장식되어 있다. 채문·자수형이 들어간 의복은 여러가지 색상의 안료나 색실을 사용하여 문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섬세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2) 금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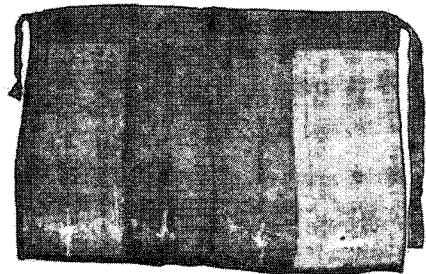
금박형은 제물선 또는 이색선을 댄 다음 선 위에



〈그림 5〉 채문·자수형(취의; 故宮圖像選萃, 圖 22)
〈그림 6〉 채문·자수형(배자; 中國古代服飾研究, p. 308)

금박으로 장식하거나 의복의 가장자리에 織金한 천을 덧대어 장식한 것이다.

〈그림 7〉은 황승묘에서 출토된 치마이다. 이는 4폭의 옷감을 2폭씩 이어 앞 중앙을 한 폭씩 두 겹으로 포개어 허리선에서 合縫하였으며, 옆가장자리 선단, 밑단에 印金填彩된 화문이 장식되어 있다.²⁶⁾ 금박형이 들어간 의복은 금색의 화려한 광채로 인해 고귀하고 현란한 이미지를 연출한다.²⁷⁾



〈그림 7〉 금박형(치마; 中華服飾藝術源流, p.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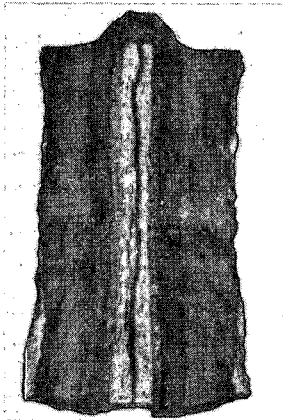
3) 부선형

부선형은 기본형과 장식형의 선을 본선으로 하고, 본선의 양쪽이나 한쪽에 다시 선을 대어 장식한 것으로 본선과 같은 색이나 다른 색을 사용하여 선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부선형은 본선의 유형에 따라 기본형+부선형과 장식형+부선형으로 분류된다.

(1) 기본형+부선형

기본형+부선형은 제물선과 이색선으로 본선을 대고 여기에 부선을 더하여 장식한 것이다.

<그림 8>의 황송묘에서 출토된 배심²⁸⁾은 대금에 제물선으로 된 본선이 둘러져 있고, 여기에 다시 금박으로 부선이 더해져 있다. <그림 9>의 궁녀가 어깨에 두르고 있는 披帛은 심청색이며, 가장자리에 흰색의 본선이 둘러져 있고 여기에 홍색의 부선이 더해져 있다. 기본형+부선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제물선, 이색선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표현된 본선에 금박이나 채색으로 된 부선이 더해져 장식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 8> 기본형+부선형
(배심; 中國歷代服飾, p.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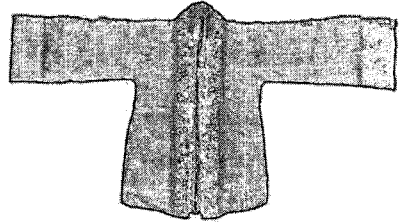
<그림 9> 기본형+부선형
(피백; 中國歷代婦女裝飾, p. 33)

(2) 장식형+부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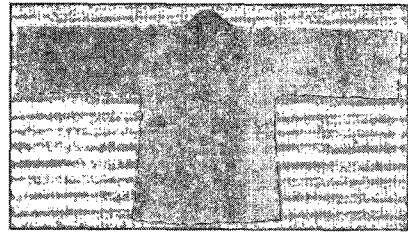
장식형+부선형은 채문형, 자수형, 금박형으로 본선으로 대고 여기에 부선을 더하여 장식한 것으로 채문형+부선형, 자수형+부선형, 금박형+부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10, 11, 12>는 황송묘에서 출토된 배자들이다. 선은 주로 깃과 쏘 부위에 사용되었으며 본선은 넓게, 부선은 가늘게 표현되어 있다. 채문형+부선형의 경우 부선은 주로 금박으로 되어 있으며, 금박과 채색이 함께 사용된 경우도 있다(그림 10).²⁹⁾ 자수형+부선형의 경우 본선에는 모란, 부용화, 차꽃, 연화 등이 수놓아져 있고, 부선에는 도화와 구슬주름이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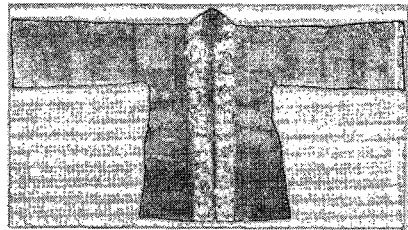
박되어 있다(그림 11).³⁰⁾ 금박형+부선형의 경우 본선에는 모란, 차꽃, 부용화, 월계화 등이 금박되어 있고, 부선에는 차꽃이 금박되어 있다(그림 12).³¹⁾ 장식형+부선형은 장식기법 중 가장 화려한 것으로, 채문, 자수, 금박으로 화려하게 표현된 본선에 금박으로 된 부선이 더해져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 10> 채문형+부선형
(배자; 中國歷代服飾, p. 186)



<그림 11> 자수형+부선형
(배자; 中華服飾藝術源流, p. 280)



<그림 12> 금박형+부선형
(배자; 中國服飾 5000年(下), p. 312)

4) 응용형

(1) 수모형

수모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동물의 털을 둘러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

〈그림 13〉의 騎士가 입고 있는 裘衣는 소색이며, 깃, 섯선, 도련, 수구에 검은색 담비털이 장식되어 있다.³²⁾ 수모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보은의 목적과 함께 의복을 실제 크기보가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위엄과 기품을 느끼게 한다.³³⁾



〈그림 13〉 수모형(裘衣; 中國歷代服飾, p. 211)

(2) 금속제형

금속제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금속류를 대어 선의 효과를 낸 것이다. 주로 갑옷이나 과두 등의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의복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14〉의 武士가 양어깨에 걸쳐고 있는 披膊는 가장자리에 금속류로 추정되는 선이 둘러져 있



〈그림 14〉 금속제형 (피박, 과두; 中國古代服飾研究, p.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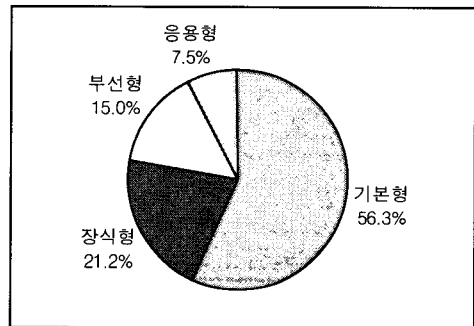
다. 그 옆의 弓屨가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과두 역시 가장자리에 금속류로 추정되는 선이 둘러져 있다.

2. 유형분포

선이 가해진 복식자료 총 80점을 중심으로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5〉와 같다.

〈표 3〉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형		유물수(%)			송대	
		남자	여자	유형별 소계	남자	여자
기본형	제물선	1	1	2(2.5)	45(56.3)	
	이색선	29	14	43(53.8)		
장식형	채문·자수형	5	10	15(18.7)	17(21.2)	
	금박형	1	1	2(2.5)		
부선형	기본형+부선형	0	5	5(6.3)	12(15.0)	
	장식형+부선형	0	7	7(8.7)		
응용형	수모형	4	0	4(5.0)	6(7.5)	
	금속제형	2	0	2(2.5)		
소 계		42 (52.5)	38 (47.5)	80(100)		



〈그림 15〉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먼저 〈표 3〉과 〈그림 15〉를 통해 송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42점 중 기본형이 30점, 장식형이 6점, 응용형이 6점으로 기본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유형별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은 총 30점 중 이색선이 29점, 제물선이 1점으로 이색선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장식형은 총 6점 중 채문·자수형이 5

점, 금박형이 1점으로 채문·자수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응용형은 총 6점 중 수모형이 4점, 금속제형으로 추정되는 것이 2점으로 수모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부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표 3>과 <그림 15>를 통해 송대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38점 중 기본형이 15점, 장식형이 11점, 부선형이 12점으로 기본형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유형별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은 총 15점 중 이색선이 14점, 제물선이 1점으로 이색선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장식형은 총 11점 중 채문·자수형이 10점, 금박형이 1점으로 채문·자수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부선형은 총 12점 중 장식형+부선형이 7점, 기본형+부선형이 5점으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며, 응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남녀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선의 유형은 이색선임을 알 수 있고, 그 외 여자복식에는 채문·자수형과 장식형+부선형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자복식에는 기본형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자복식에는 기본형과 함께 장식형과 부선형도 많이 사용되었다. 즉 선은 남자복식에는 의복 가장자리를 처리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여자복식에는 의복을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IV. 조형특성 분석

1. 사용범위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먼저 <표 4>를 통해 송대 남자의복에 사용된 선의 유형별 출현순위는 기본형의 이색선, 장식형의 채문·자수형, 응용형의 수모형 등의 순위고, 선이 가해진 의복종류의 출현순위는 직철>학창의=조복>모자=과두>배자=맥수=대의=가사 등의 순이다. 즉 기본형 중 이색선은 직철, 학창의, 강사포 등에 사용되었다. 이는 의복의 가장자리 처리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배색효과로 인해 장

식성을 겸하고 있다. 장식형 중 채문·자수형은 맥수나 대의, 군의 등에 사용되어 신분을 표시하거나 장식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응용형 중 수모형은 주로 모자나 털옷의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보온성과 함께 장식적인 면도 나타낸다.

다음으로 <표 4>를 통해 송대 여자의복에 사용된 선의 유형별 출현순위는 기본형의 이색선, 장식형의 채문·자수형, 부선형의 장식형+부선형, 기본형+부선형 등의 순위고, 선이 가해진 의복종류의 출현순위는 배자>피백>포>유>휘의>과두>대수=배자=배심=삼 등이다. 즉 기본형 중 이색선은 포, 유, 배자, 피백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남자의복에서와 같이 실용과 장식을 겸하고 있다. 장식형 중 채문·자수형은 휘의, 포, 배자 등에 사용되어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선형 중 장식형+부선형은 배자, 대수에, 기본형+부선형은 유, 삼, 배심, 반비, 피백 등의 상의류와 소품에 주로 사용되어 장식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표 4>를 통해 성별에 따른 의복의 항목별 사용된 선의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총 42점 중 포가 23점, 소품이 7점, 상의와 승복이 각각 6점으로 포의 비중이 높으며, 여자의 경우 총 38점 중 상의가 21점, 포가 10점, 소품이 6점, 치마가 1점으로 상의의 비중이 높다. 즉 선은 남자복식에는 직철과 학창의 등 의례용과 평상용 포에 비중있게 사용되고, 여자복식에는 배자와 같은 상의류에 비중있게 사용되는 등 남녀 모두 평상시 즐겨 입는 겉옷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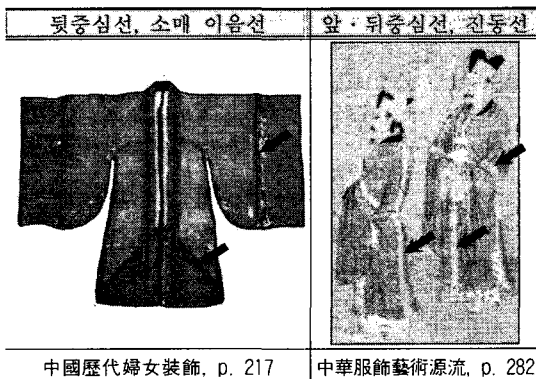
2. 사용부위

선은 주로 깃, 수구, 도련, 섶 등 의복의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송대의 유물을 보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위, 즉 앞·뒤 중심선, 진동선, 소매 이음선 등에도 선이 사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6>에 의하면 선은 앞·뒤 중심선, 진동선, 소매 이음선 등에 사용되었으며, 뒷길 아래부위에 삼각형의 별도의 친을 붙일 때에도 삼각형의 솔기선을 따라 선이 대어져 있다. 따라서 송대에는 선이 중요한 조형요소로 작용하여 선의

〈표 4〉 선이 사용된 남·녀 의복의 종류

유형	의복종류	남자					소계 (%)	여자				소계 (%)
		포		상의	僧服	소품		포	상의	치마	소품	
		의례복	편복									
기본형	제물선				가사(1)		1 (2.4)		배심(1)			1 (2.6)
	이색선 (강사포:4) 직령교 임대수포(1)	직철(13) 학창의(4)	배자(2) 반비(1) 유(1)	대의(1) 가사(1)	과두(1)	29 (69.0)	직령교 임포(2) 금포(1)	유(3) 배자(2) 삼(1) 직철(1)		피백(4)	14 (36.8)	
장식형	채문·자수형			맥수(2)	대의(1) 군의(1)	과두(1)	5 (11.9)	휘의(3) 직령교 임포(2)	배자(3) 반비(1)	치마(1)		10 (26.3)
	금박형				가사(1)		1 (2.4)		배자(1)			1 (2.6)
부선형	기본형+부선형						0		유(1) 삼(1) 배심(1)		피백(2)	5 (13.2)
	장식형+부선형						0	대수(2)	배자(5)			7 (18.5)
응용형	수모형		구의(1)			모자(3)	4 (9.5)					0
	금속제형					과두(1) 피박(1)	2 (4.8)					0
소계(%)		5 23(54.7)	18 (14.3)	6 (14.3)	6 (16.7)	7 (100)	42 (100)	10 (26.3)	21 (55.3)	1 (2.6)	6 (15.8)	38 (100)

사용부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에 의해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특정부위에 사용된 선

3. 재질

송대에는 방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방직업은

견직물의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盛唐의 웅장하고 화려한 견직물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제직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섬세하고 정교한 직물이 만들어졌다.³⁴⁾ 강북·정주 일대가 생산의 중심지로 여기서 생산되었던 견직물은 錦, 綾, 羅, 純, 紗, 綺 등을 포함하여 40여 종이 넘었는데, 모두가 幾何紋, 山水, 花鳥 등을 새긴 것으로 무늬가 다양하고 색깔이 아름다웠다. 송대에 이같이 질이 좋고 사치스러운 견직물이 발달하였던 이유는 송대의 경제가 발달되어 견직물의 수요가 특수계층의 수요를 넘어 일반대중에게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³⁵⁾ 특히 미술직물인 縹絲는 가장 정교하여 그 변화가 대단히 미묘하였는데 이는 일반 의류에 사용되기 보다는 한복의 서화와 같은 작품으로 송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였으며, 제직기술 또한 고도로 발달하였다.³⁶⁾

송대에는 이러한 다양한 바탕직물을 의복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때 선은 바탕직물에 사용된 문양의 유무나 크기, 화려한 정도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바탕천의 지문이 크고 화려하면

선은 소박하고 단순한 제물선이나 이색선이 사용되었고, 바탕천의 지문이 없거나 적으면 선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채문·자수형과 부선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2, 3>을 보면, 지문에 모란꽃이 화려하게 직조된 배심이나, 등근테두리 안에 독수리 두 마리가 직조된 금포 등에는 제물선, 이색선 등 선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그림 5, 6, 7, 10, 11, 12>를 보면, 바탕천이 단색이거나 문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문·자수형, 금박형, 부선형 등 선이 매우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4. 문양

문양이 시문된 고찰 가능한 복식자료가 26점³⁷⁾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문양의 구성요소별, 배치구도별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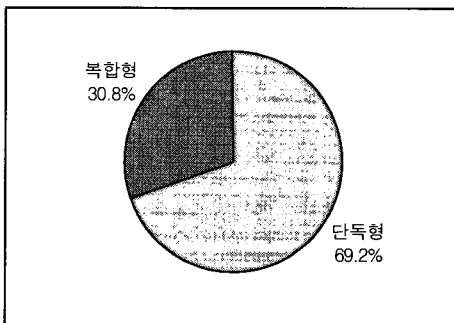
먼저 구성요소에 따른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5>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7>과 같다.

<표 5>와 <그림 17>에 의하면 구성요소에 따른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되고, 단독형은 식물문과 기하문으로 분류되고, 복합형은 식물문과 식물문, 동물문과 식물문, 동물문과 자연문, 식물문과 인물문과 생활문 등이 조합된 것으로 분류된다. 문양이 시문된 복식자료 26점 중 단독형이 18점(69.2%), 복합형이 8점(30.8%)으로 단독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단독형으로 사용된 문양 중 주로 사용된 것은 화문과 당초문 등의 여성스러운 문양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자복식에는 주로 기본형이 사용되어 문양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여자복식에는 기본형과 함께 장식형과 부선형도 사용되어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성복식에 조화되는 화문, 당초문 등이 여성스러운 문양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배치구도에 따른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충전형과 산점형으로 나타나고 회화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6>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8>과 같다.

<표 5> 구성요소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분류	구성요소	문양의 종류(유물수)	유물수(%)
단독형	식물문	화문(10), 당초문(4)	14(53.8)
	기하문	연주문(3), 뇌문(1)	4(15.4)
복합형	식물문+식물문	화문+화문(2), 화문+당초문(1)	3(11.5)
	동물문+식물문	매+초엽문(1)	1(3.9)
	동물문+자연문	용문+운문(3)	3(11.5)
	식물문+인물문+생활문	부용+인물+누각(1)	1(3.9)
소 계			2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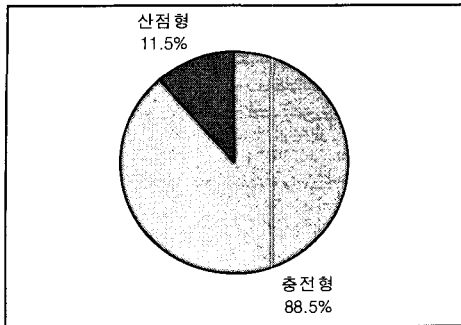


<그림 17> 구성요소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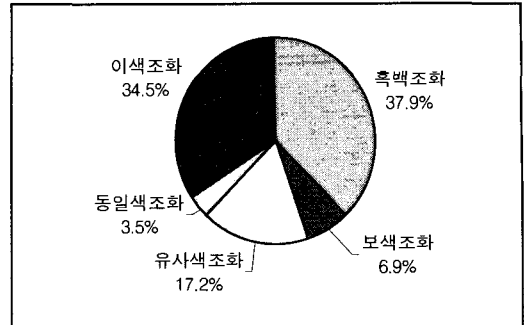
<표 6>과 <그림 18>에 의하면 문양이 시문된 복식자료 26점 중 충전형이 23점(88.5%), 산점형이 3점(11.5%)으로 충전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표 6> 배치구도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형	유물수(%)
충전형	23(88.5)
산점형	3(11.5)
소 계	26(100)



〈그림 18〉 배치구도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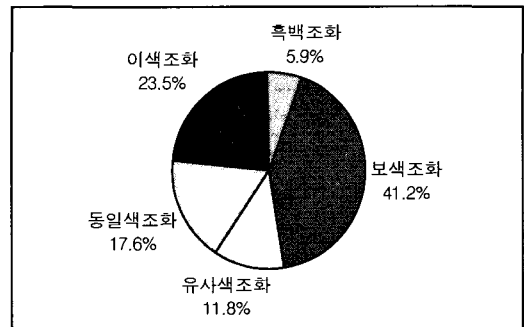
〈그림 19〉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남자)

5. 배색방법

배색방법은 편의상 흑백조화, 보색조화, 유사색조화, 동일색조화, 이색조화 등으로 구분한다.

바탕천과 선의 배색방법을 알 수 있는 송대 복식 자료 63점을 선별하여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7〉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9, 20〉과 같다.

먼저 〈표 7〉과 〈그림 19〉를 통해 송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9점 중 흑백조화가 11점(37.9%), 이색조화가 10점(34.5%), 유사색조화가 5점(17.2%), 보색조화



〈그림 20〉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여자)

〈표 7〉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

배색방법	남자복식				여자복식												
	바탕천	선	유물수	소계(%)	바탕천	선	유물수	바탕천	선	유물수	소계(%)						
흑백조화	백	흑	11	11(37.9)	백	흑	1	백	흑+홍	1	2(5.9)						
보색조화	청	홍	1	2(6.9)	황	청	5	청	홍	3	14(41.2)						
	황	청	1		청	홍+백	3	청	황	1							
유사색조화	황	홍	2	5(17.2)	황	홍	2	갈	황	2		4(11.8)					
	갈	진갈	1								갈		황	1			
	갈	홍	1								갈		황	1			
동일색조화	백	백	1	1(3.5)	황갈	갈	황+백	2	황갈	황갈	1	6(17.6)					
					갈	청	갈	1	황	황갈	1						
이색조화	청	흑	2	10(34.5)	백	홍	2	백	청	1	8(23.5)						
	백	청	2									백	홍	1			
	갈	흑	2									홍	자주	1			
	백	홍	1									백	자회	1			
	홍	흑	1									안개빛	백+황	1	연황색	남	1
	황	회	1														
진갈	흑	1															
소계	29(100)				34(100)												

가 2점(6.9%), 동일색조화가 1점(3.5%)의 순으로 흑백조화와 이색조화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7>과 <그림 20>을 통해 송대 여자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34점 중 보색조화가 14점(41.2%), 이색조화가 8점(23.5%), 동일색조화가 6점(17.6%), 유사색조화가 4점(11.8%), 흑백조화가 2점(5.9%)의 순으로 보색조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운데 이색조화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선은 남자복식에는 흑백조화와 이색조화가, 여자복식에는 보색조화와 이색조화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색상조화는 모두 바탕천으로부터 선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의복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흑백조화는 남자복식에 주로 사용되어 정갈하면서도 단정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색조화는 여자복식에 주로 사용되어 의복을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강렬하면서도 깔끔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색조화는 남녀복식 모두에 사용되었는데, 주로 무채색인 白·灰·黑과의 배색으로 차분하면서도 담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V. 결언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구성법과 장식기법, 본선의 유무, 그리고 사용된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선의 조형특성을 사용범위, 사용부위, 재질, 문양, 배색방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송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선은 기본형, 장식형, 부선형, 응용형으로 분류된다. 기본형은 구성법에 따라 제물선과 이색선으로 분류되고, 장식형은 장식기법에 따라 채문·자수형, 금박형으로 분류되고, 부선형은 본선의 유형에 따라 기본형+부선형과 장식형+부선형으로 분류되며, 응용형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수모형과 금속제형으로 분류된다.

2.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기본형이 56.3%,

장식형이 21.2%, 부선형이 15.0%, 응용형이 7.5%으로 기본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기본형 중 이색선이 53.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남자복식에는 기본형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자복식에는 기본형과 함께 장식형과 부선형도 많이 사용되었다. 즉 선은 남자복식에는 의복가장자리를 처리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여자복식에는 의복을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 선의 사용범위를 보면, 선은 주로 겹옷에 사용되었는데 남자복식의 경우 편복포 중 직철과 확창의에, 여자복식의 경우 상의류 중 배자에 주로 사용되었다.

4. 선의 사용부위를 보면, 선은 주로 의복의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동시에 가장자리가 아닌 부위, 즉 앞·뒤중심선, 진동선, 소매 이음선 등 의복의 솔기선에도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 즉 송대에는 선의 사용부위가 다양해지고, 의복을 장식하는 기능이 확대되었다.

5. 선에 사용된 재질을 보면, 선은 바탕직물에 사용된 문양의 유무나 크기, 화려한 정도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바탕천의 지문이 크고 화려하면 선은 소박하고 단순한 제물선이나 이색선이 사용되었고, 바탕천의 지문이 없거나 적으면 선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채문·자수형과 부선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6. 선에 사용된 문양의 구성요소는 단독형 중 식물문이 53.8%, 복합형 중 식물문+식물문과 동물문+자연문이 각각 11.5%로 식물문이 주로 사용되었다. 문양의 배치구도는 충전형이 88.5%, 산점형이 11.5%로 충전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7. 선에 사용된 배색방법은 남자복식의 경우 흑백조화(37.9%)와 이색조화(34.5%)가, 여자복식의 경우 보색조화(41.2%)와 이색조화(23.5%)가 주로 사용되었다. 즉 바탕천으로부터 선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의복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8. 선이 가해진 의복의 미적 특성을 보면, 제물선이 들어간 의복은 은은한 미를, 이색선이 들어간 의복은 깔끔하고 선명한 미를 연출한다. 채문·자수형과 부선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장식적이고 화려한 미를, 금박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고귀하고 현

란한 미를, 그리고 수모형과 금속제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표면 재질감에 의해 입체적인 미를 연출한다.

참고문헌

- 1) 李正玉, 南厚先, 權美靜, 陳玄善 (2000). 中國服飾史. 서울: 형설출판사, p. 165.
中華五千年文物集刊편, 손경자역 (1995). 中國服飾5000年(上). 서울: 경춘사, p. 31.
- 2) 서옥경 (1992). 고려시대와 송대의 관복 비교연구 - 공·상복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서옥경 (1997). 高麗時代와 宋代의 冠服 비교연구 - 公·常服을 중심으로. 복식, 31.
서옥경 (1997). 宋代의 冠服에 관한 연구 - 公·常服을 중심으로. 복식, 34.
김혜영 (1994). 고려와 원 복식의 비교 연구. 世宗大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손경자 (1990). 한국·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Ⅰ) - 고려시대의 몽고침략기를 중심으로. 복식, 14.
손경자 (1991). 한국·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Ⅱ) - 고려시대의 몽고침략기를 중심으로. 복식, 16.
- 3) 유희경 (1974). 고려복식에 미친 중국복식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집 23.
이순자 (1995). 송복식이 고려복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여자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3권.
김문숙 (1981). 우리복식에 중국복식이 미친 영향.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4) 周錫保 (2001).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 257.
- 5) 黃能馥, 陳娟娟 (2004). 中國服飾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 304.
임명미 (1988). 中國의 古代服飾研究(Ⅰ). 서울: 경춘사, pp. 89-90.
李正玉, 南厚先, 權美靜, 陳玄善 (2000). 앞책, p. 165.
中華五千年文物集刊편, 손경자역 (1995). 앞책, pp. 30-31.
- 6) 앞책, pp. 30-31.
- 7) 周錫保 (2001). 앞책, pp. 257-264.
- 8) 黃能馥, 陳娟娟 (2004). 앞책, pp. 304-320.
- 9) 華梅 (2003). 中國服裝史.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pp. 72-77.
華梅 著, 朴聖實, 李秀雄 譯 (1992). 中國服飾史. 서울: 경춘사, pp. 145-153.
- 10) 李正玉, 南厚先, 權美靜, 陳玄善 (2000). 앞책, pp. 164-173.
- 11) 김문숙 (2000). 고려시대 원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1-92.
- 12) 王宇清 (1975). 中華服飾圖錄. 台北: 世界地理社, 民國 73, pp. 114-115.
- 13) 周錫保 (2001). 앞책, pp. 288-313.
- 14) 黃能馥, 陳娟娟 (2004). 앞책, pp. 321-327.
- 15) 華梅 (2003). 앞책, pp. 77-80.
華梅 著, 朴聖實, 李秀雄 譯 (1992). 앞책, pp. 155-160.
- 16) 李正玉, 南厚先, 權美靜, 陳玄善 (2000). 앞책, pp. 173-182.
- 17) 이순자 (1995). 앞 논문, pp. 130-136.
- 18) 李正玉, 南厚先, 權美靜, 陳玄善 (2000). 앞책, p. 175.
- 19) 中華五千年文物集刊편, 손경자역 (1995). 앞책, p. 31.
- 20)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에 표현된 襪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5(2), pp. 60-62.
옥명선, 박옥련 (2006). 고려후기 수월관음圖 복식에 표현된 襪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6(1), pp. 73-74.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3).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襪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3(8), pp. 40-43.
- 21) 周迅, 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 學林出版社, p. 228.
- 22)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3). 앞 논문, p. 41.
- 23) 黃能馥, 陳娟娟 (1994). 中華服飾藝術原流. 高等教育出版社, p. 277.
- 24)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3). 앞 논문, p. 41.
- 25) 中華五千年文物集刊편, 손경자역 (1995). 앞책, p. 290.
- 26) 박경자 (1989). 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 研究. 생활문화연구, 제3집, p. 13.
- 27)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3). 앞 논문, p. 42.
- 28) 周錫保 (1986). 中國歷代服飾. 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p. 187.
- 29) 앞책, p. 186.
- 30) 中華五千年文物集刊편, 손경자역 (1995). 앞책, p. 308.
- 31) 앞책, p. 312.
- 32) 周錫保 (2001). 앞책, p. 339.
- 33)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3). 앞 논문, p. 44.
- 34) 조효숙 (1993). 韓國 絹織物 研究 - 高麗時代를 中心으로.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3.
- 35) 이춘식 (2005). 중국사서실. 서울: 교보문고, p. 324.
華梅 著, 朴聖實, 李秀雄 譯 (1992). 앞책, p. 169.
- 36) 민길자,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서울: 한림원, pp. 111-118.
- 37) 총 80점 중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기본형 45점과 수모형 4점, 기본형+부선형 3점,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는 2점은 제외하였다.